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역량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의 매개효과*

박 새 림¹⁾

홍 예 지²⁾

이 강 이³⁾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 연구는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 양육역량,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및 아동의 학교 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실시한 학부모교육참여패널조사의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 163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양육역량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을 매개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즉,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이 높을수록 스스로의 양육역량을 낮게 평가하며, 양육역량이 낮을수록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의 감소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취업모의 양육역량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들이 지각하는 일-자녀교육 갈등이 양육역량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과 같은 심리·정서적 양육 요인을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취업모, 일-자녀교육 갈등, 학교적응, 양육역량,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NRF-2017S1A5B8A02072579).

1)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2) 교신저자 :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초빙교수 (E-mail: yjhong@inha.ac.kr)

3)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및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I. 서론

초등학교로의 전이는 아동으로 하여금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맥락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생애 사건이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저학년 아동에게 가장 요구되는 과업은 크게 달라지는 초등학교의 구조화된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에서 경험했던 놀이 및 활동 중심의 일과와는 달리, 구조화된 일과 및 학업 중심의 학교 환경은 아동에게 새로운 규칙을 배우고 학습활동에 적응하며, 새로운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에 적응할 것을 요구한다(김수정, 곽금주, 2010).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학교적응의 양상은 이후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진적인 학교생활 적응과 대인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아동 발달 및 성취와도 연결되므로 매우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이진숙, 2004; Rimm-Kaufman & Pianta, 2000). 부모 또한 학령초기 자녀의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이 시기 자녀를 둔 부모의 주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김선미, 2004).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동 개인, 부모, 학교 맥락에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의 경로를 밝혀왔다(김지영, 이강이, 2020). 이 중에서도 특히 학령초기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밝힌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 기질, 문제행동과 같은 아동 개인 요인(김수정, 곽금주, 2010; 노보람, 박세롬, 최나야, 박혜준, 2018; 장혜진, 김은설, 송신영, 2014)과 함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및 통제적 양육(김충일,

권윤정, 2018; 민미희, 2018a), 양육민감성 및 양육효능감(우주영, 심미경, 2019),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민미희, 2018b; 장혜진 외, 2014), 교육지원 유형(노보람, 박세롬, 박혜준, 최나야, 2020) 등과 같은 양육 관련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학령초기 학교적응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된 요인이 주요 예측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령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 특성에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어머니의 취업여부라고 할 수 있다. 비취업모와 달리 취업모는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부담이 있고, 자녀 돌봄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면서도 주양육자 및 가사노동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취업을 했으나, 하지 않았느냐의 여부보다는 일과 가정 두 영역에서 요구되는 책임으로 인한 긴장(Frone, Russell, & Cooper, 1992), 그리고 제한된 개인의 시간 및 에너지를 분배하는 데서 오는 일-가정 갈등(work-life conflict)을 얼마나 경험하는지(Goode, 1960)가 어머니의 양육행동 특성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계청(2020)이 발표한 맞벌이 가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46.0%로, 최근 10년의 통계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2009년의 40.1%부터 대체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의 아내는 가정관리 및 육아에 소요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7분으로 남편(54분)에 비해 약 3.5배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최근 가사노동

분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남편이 아내를 ‘돕는’ 것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한다’는 것으로 변화되어오고 있고, 맞벌이 가정 아버지들도 가정생활의 책임을 분담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2019년 조사결과는 10년 전인 2009년에 맞벌이 가정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이 평균 3시간 20분, 남편이 37분(통계청, 2010)이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여전히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가정에서 더욱 과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과 가정 영역에서 제한된 자원을 분배하여야 하는 일-가정 갈등을 높게 경험할 수 있다.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가정에서 요구되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역할 중 특히 자녀양육에 더욱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정숙, 2011). 가사노동은 반복적이고 예측가능하여 시간 분배가 보다 융통성 있는 데 반해, 자녀 돌봄 및 양육자로서의 역할은 대체불가능하며 자녀의 성장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 요구 외에도 우발적인 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자녀교육 갈등의 양상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을 기점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일-자녀교육 갈등을 특히 높게 경험할 수 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자녀의 출생 이후 가족생활 및 부모의 역할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며, 양육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을 위한 교육자로서의 부모 역량이 요구되는 가족생활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이

전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81.9%가 일과 자녀교육을 양립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하였다(윤지영, 2016)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자녀의 학업 및 대인관계 등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영유아기 때와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책임감, 담임교사 상담이나 학부모 모임, 학교행사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학부모 활동에 대한 부담감 등이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를 곧 자신의 성취로 인식하며(이민경, 2007), 이는 높은 교육열과 맞물려 자녀의 교육적 성공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이종각, 김기수, 2003).

초등학교 전이기에 자녀의 학교적응을 돕는 것은 여전히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역할로 간주되고 있고,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우 새롭게 확대된 학부모의 역할로 인한 긴장과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높은 교육열은 일-자녀교육 갈등을 높일 것이다. 또한 이 시기의 맞벌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은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양난주, 2020). 지금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종일 돌봄을 받았던 것에 비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정규 수업시간이 더 짧아지고, 방학, 자율휴업일 등 가정 돌봄이 필요한 시간이 더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정 돌봄을 대체하기 위하여 자녀가 원하지 않더라도 여러 개의 학원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는 다른 발달단계에 있는 자녀를 둔 취업모

에 비해 일-자녀교육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퇴직을 고려했던 취업모의 비율이 50.5%에 달했으며(KB경영연구소, 2019),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연구(이재희, 김근진, 2019)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자녀교육 갈등이 어머니 양육행동 및 자녀 발달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생물생태학적 체계이론(bioecological systems theory)에서는 가족이 처한 다양한 생태환경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ronfenbrenner & Morris, 2006). 어머니는 자녀의 발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미시체계이며, 어머니가 직장과 가정환경에서 경험하게 되는 긴장과 갈등은 외체계로서 어머니의 양육 특성과 같이 자녀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시체계들과 상호작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특히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경험하게 되는 일-자녀교육 갈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하여 자녀의 긍정적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가정 갈등이 어머니의 양육 관련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몇몇 선행연구들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박주희, 2015), 양육태도(김종민, 최은아, 2018) 및 양육수행 역량(정은화, 김지영, 이현아, 이강이, 2020) 등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밝혔는데,

본 연구에서는 양육역량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역량(parenting competence)은 부모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조형숙, 김명하, 2013)을 의미한다. 그동안 양육신념, 양육효능감 등 양육과 관련된 어머니의 세부적 특성에 주목하여 왔으나(정정화, 홍예지, 이강이, 2019), 양육역량은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 및 발달에 대한 이해, 양육 관련 가치관, 그리고 실제로 부모 자신의 자녀양육 수행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장혜진, 윤은주, 2014). 선행연구에서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자녀교육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역량, 즉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정은화 외, 2020), 이러한 결과가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험하는 일-가정 갈등이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학령 초기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연구(이운경, 김민주, 윤기봉, 2018)에서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외체계로서의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이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으나, 일-가정 갈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특히 높게 경험할 수 있는 일-자녀교육 갈등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과 양육역량이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

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령초기 자녀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어머니의 양육역량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외에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수행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활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부모 자신의 양육역량에 관한 인식과 평가는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데(Abidin, 1992),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따라 교육지원 활동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노보람 외, 2020).

교육지원은 자녀의 발달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양육행동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전지원, 전자배, 2016). 교육지원 활동은 사교육 및 가정 내 교육지원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에 학습을 위한 사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지만 사교육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역량을 타당하게 반영하는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모의 경우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사교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비취업모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외부 교육기관을 통한 사교육에 비해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은 어머니의 역할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양육역량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한 형태의 교육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학습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주

거나 학습을 지도하고, 학습 및 생활스케줄을 관리하며,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심미옥, 2003).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는 학교 및 교사 변인 외에도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며(오성삼, 구병두, 1999; Epstein, 1992),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유형에 따라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노보람 외, 2020) 등이 있지만, 과외나 학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 이외에 가정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교육적 지원 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자녀교육 갈등, 양육역량,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간 영향력의 구조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자녀교육 갈등은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대한 인식과 실제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지원 활동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학교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에서도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 수준은 돌봄 공백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게 되는 1학년 시기에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2학년 시기는 1학년 시기에 비해 자녀 입학 후 첫 1년 동안 어머니가 갈등을 조율하고 적응하는 경험을 통하여 일-자녀교육 갈등과 양육역량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의 패턴이 보다 구체화되

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발달적으로도 아동의 학교적응 패턴이 1학년 시기에 비해 안정적으로 나타나며, 학교생활 및 대인관계, 그리고 학업성취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와 기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이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양육역량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은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과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의 ‘한국형 학부모참여패널 연구(Panel Study on Korean Parent Educational Involvement [PSKPEI])’의 2차 연도(2018년, 초등학교 2학년)자료를 사용하였다. 학부모교육참여패널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학부모의 역할과 교육참여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확인하고자 구축한 자료로 2017년 3월에 첫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수도권 거주 어머니 368명을 대상으로 1차 연도 1차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같은 해 8월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어머니 243명을 대상으로 1차 연도 2차 조사가 실시되었다(표본 유지율 66%). 이후 2017년 8월 165명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2차 연도에는 최종적으로 총 425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차 연도 자료인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중 현재 재직 중이라고 응답한 취업모 총 15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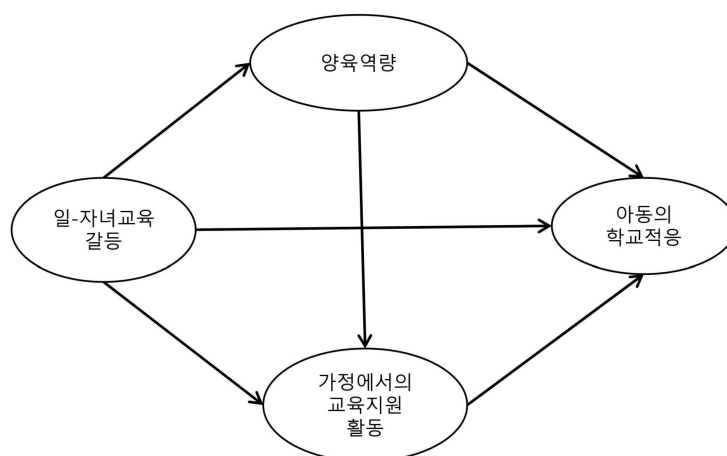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은 36세 이상 40세 이하가 56.8%로 가장 많았으며, 41세 이상 45세 이하 20.6%, 35세 이하 14.2%, 46세 이상 50세 이하 8.3%로 뒤를 이었다.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 54.2%, 2-3년제 대학 졸업 28.4%, 고등학교 졸업 15.5%, 대학원 졸업 1.9% 순이었다. 어머니의 직업 유형으로는 사무직이 54.8%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직 18.7%, 판매직 16.8%, 고위관리직/전문직 5.2%, 단순노무직/기술직 4.5%로 뒤를 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이 66.4%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3.2%, 700만원 이상 10.3% 순이었다. 남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47.1%였고, 여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52.9%를 차지하였으며, 각 가정의 자녀 수는 2명 44.5%, 1명 38.7%, 1명 7.1% 순이었다(결측치 9.7%).

2. 측정도구

학교적응

아동의 학교적응은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개발한 학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학교적응에 관한 6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이강이, 그레이스정, 이현아, 최인숙, 2013).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두 요인은 자녀의 학교생활,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의 세 가지 측면으로 각 2문항씩 구성된다. 문항의 예시로 “나는 자녀의 학교생활을 알고 있다”, “나의 자녀는 교사와 잘 지내고 있다”, “나의 자녀는 친구와 잘 지내고 있다” 등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되었다. 각 하위 요인별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학교생활을 잘 하고,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자녀의 학교생활 .56, 교사와의 관계 .64, 또래와의 관계 .66이다.

일-자녀교육 갈등

일-자녀교육 갈등은 Cinamon과 Rich(2002)가 개발하고 유성경, 홍세희, 박지아와 김수정(2012)이 타당화한 ‘일-가족 갈등 척도’를 학부모교육참여패널 연구진이 ‘일-가족 갈등’을 ‘일-자녀교육 갈등’으로 변경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총 14문항으로 구성되며, 문항의 예시는 “나는 직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면, 너무 지쳐서 자녀교육에 신경을 쓰기 어렵다.”, “나는 직장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자녀교육에 대해서 걱정한다.”, “나는 심지어 자녀교육을 위한 활동을 할 때도 직장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 “자녀교육을 위한 나의 활동은 직장 일을 방해한다.” 등이 있다. 일-자녀교육 갈등의 모든 문항으로 요인분석과 내적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뚜렷한 요인구조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측정변인이 많을 경우 모형의 기각 확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에 근거하여 전체 문항을 임의할당방법(random parceling)으로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되었다. 각 하위 요인별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일-자녀교육 갈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일-자녀교육 갈등1 .85, 일-자녀교육 갈등2 .87, 일-자녀교육 갈등3 .79, 일-자녀교육 갈등4 .89이다.

양육역량

양육역량은 정계숙과 최은실(2013)이 개발한 부모역량 척도 중 양육역량 관련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원척도는 총 9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지만 박재국, 서보순과 김은라(2013)가 분류한 4개의 하위요인, 총 12개의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하위 요인은 민주적 양육(3문항), 반응적·공감적 양육(3문항), 자녀 생애 진로 개발(3문항), 발달·학습 지원 환경 제공(3문항)으로 구성되며, 문항의 예시는 각각 “나는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을 다스리는 상황에서도 민주적으로 대하려고 애쓴다.”, “나는 아이의 속마음을 읽고, 그에 맞게 양육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나는 아이의 진로와 소질 개발에 더욱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아이의 바른 성장을 위해 적절하게 교육적, 물질적, 정서적 도움을 주고 있다.” 등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각 하위 요인별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민주적 양육 .57, 반응적·공감적 양육 .64, 자녀 생애 진로 개발 .65, 발달·학습 지원 환경 제공 .65이다.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은 심미옥(2003)이 개발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원척도는 6개의

하위 요인,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요인분석과 내적신뢰도 분석을 통해 연구진이 다음과 같이 4개의 하위 요인, 총 16문항으로 구성개념을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습분위기 조성 및 학습지도 문항으로 학습지도/분위기(4문항)를 구성하였으며, 문항의 예시로 “자녀가 공부할 때는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등이 있다. 둘째, 생활통제와 시간통제 문항으로 생활/시간통제(5문항)를 구성하였으며, 문항의 예시로 “자녀의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주고 지키도록 한다.” 등이 있다. 셋째, 정보수집(4문항)은 원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문항의 예시로 “좋은 학습지, 참고서, 학원에 대해 알아보려 애쓴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경험(3문항)은 원척도에서 요인적재치가 낮았던 1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3개의 문항으로 요인을 구성하였다. 문항의 예시로 “캠핑, 공연, 여행, 책방, 도서관 등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한다.” 등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각 하위 요인별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교육지원 활동을 더 많이 제공함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학습지도/분위기 .65, 생활/시간통제 .67, 정보수집 .77, 문화적 경험 .65이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과 Mplus 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인의 분포를 살펴

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고,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이 연구의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지 확인하는 측정모형분석과 연구모형의 경로를 확인하는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χ^2 값과 함께 절대적합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residual)와 상대적합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값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RMSEA는 .08 이하(Browne & Cudeck, 1993), TLI와 CFI는 .90 이상인 경우를 좋은 적합도로 보았다(홍세희, 2000). 또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이 양육역량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을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각 변인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살펴보았으며,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데이터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일-자녀교육 갈등의 하위 요인별 평균 점수는 2.88점($SD = .78$), 3.01점($SD = .91$), 2.80점($SD = .74$), 2.67점($SD = .86$)으로 2점 후반에서 3점

초반대에 분포하였다. 양육역량의 4개 하위 요인별 평균 점수는 민주적 양육 3.85($SD = .50$), 반응적/공감적 양육 3.86점($SD = .51$), 자녀 생애 진로 개발 3.79점($SD = .52$), 발달·학습지원 환경 제공 3.97점($SD = .45$)이었으며,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의 4개 하위 요인별 평균 점수는 학습지도/분위기 3.49점($SD = .54$), 생활/시간통제 3.42점($SD = .58$), 정보수집 4.43점($SD = .68$), 문화적 경험 4.65점($SD = .51$)으로 모두 3점 후반에서 4점 중반대로 중앙값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은 학교생활 4.28점($SD = .47$), 교사와의 관계 4.22점($SD = .53$), 친구와의 관계 4.18점($SD = .51$)으로 연구대상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적응을 높은 수준에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살펴 본 결과, 왜도 값은 $-1.14 \sim .91$ 이고, 첨도 값은 $-.92 \sim 1.25$ 이었다. 즉,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 미만, 7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본 자료가 정규성 분포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다음으로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은 양육역량의 하위 요인 중 반응적/공감적 양육($r = -.16 \sim -.23$, $p < .05$ 또는 $p < .01$) 및 발달·학습지원 환경 제공($r = -.34 \sim .42$, $p < .001$)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의 하위 요인 중 학습지도/분위기($r = -.16 \sim -.21$, $p < .05$ 또는 $p < .01$) 및 문화적 경험($r = -.17 \sim -.27$, $p < .05$ 또는 $p < .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아동의 학교적응과는 대체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취업모의 양육역량은 가정에서의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78***	1													
3	.73***	.69***	1												
4	.75***	.67***	-.82***	1											
5	-.02	-.09	-.10	-.01	1										
6	-.16*	-.18*	-.23**	-.23**	.37***	1									
7	.01	-.06	-.06	-.01	.37***	.46***	1								
8	-.35***	-.34***	-.40***	-.42***	.37***	.56***	.46***	1							
9	-.21**	-.20*	-.16*	-.16*	.29***	.31***	.16*	.24**	1						
10	.06	.04	.07	.16*	.34***	.18*	.20*	.15	.38***	1					
11	.11	.09	.24**	.32***	.23**	.13	.24**	.02	.31***	.52***	1				
12	-.22**	-.27**	-.17*	-.19*	.30***	.40***	.32***	.37***	.48***	.34***	.34***	1			
13	-.17*	-.13	-.19*	-.25**	.08	.12	.15	.23**	.25**	.15	.05	.24**	1		
14	-.14	-.20*	-.12	-.07	.18*	.12	.10	.24**	.29***	.16	.11	.25**	.59***	1	
15	-.14	-.22**	-.15*	-.07	.13	.11	.21**	.24**	.36***	.20*	.18*	.27***	.59***	.58***	1
M	2.88	3.01	2.80	2.67	3.85	3.86	3.79	3.97	3.49	3.42	4.43	4.65	4.28	4.22	4.18
SD	.78	.91	.74	.86	.50	.51	.52	.45	.54	.58	.68	.58	.47	.53	.51
왜도	-.12	-.40	-.20	-.22	-.29	-.33	-.56	.12	-.15	-.34	-1.14	-.31	.16	-.02	-.16
첨도	-.79	-.80	-.92	-.89	.67	.69	.67	.02	.07	.21	1.25	-.03	-.73	-.68	.40

Note. N = 163. 1 = 일-자녀교육 갈등1; 2 = 일-자녀교육 갈등2; 3 = 일-자녀교육 갈등3; 4 = 일-자녀교육 갈등4; 5 = 민주적 양육; 6 = 반응적 · 공감적 양육; 7 = 자녀 생애 진로 개발; 8 = 발달 · 학습 지원 환경 제공; 9 = 학습지도/분위기; 10 = 생활/시간통제; 11 = 정보수집; 12 = 문화적 경험; 13 = 학교생활; 14 = 교사와의 관계; 15 = 또래와의 관계.

* $p < .05$. ** $p < .01$. *** $p < .001$.

교육지원 활동($r = .16 \sim .40, p < .05, p < .01, p < .001$) 및 아동의 학교적응($r = .21 \sim .24, p < .05$ 또는 $p < .01$)과 대체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은 아동의 학교적응($r = .24 \sim .36, p < .05, p < .01, p < .001$)과도 대체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2.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 양육역량,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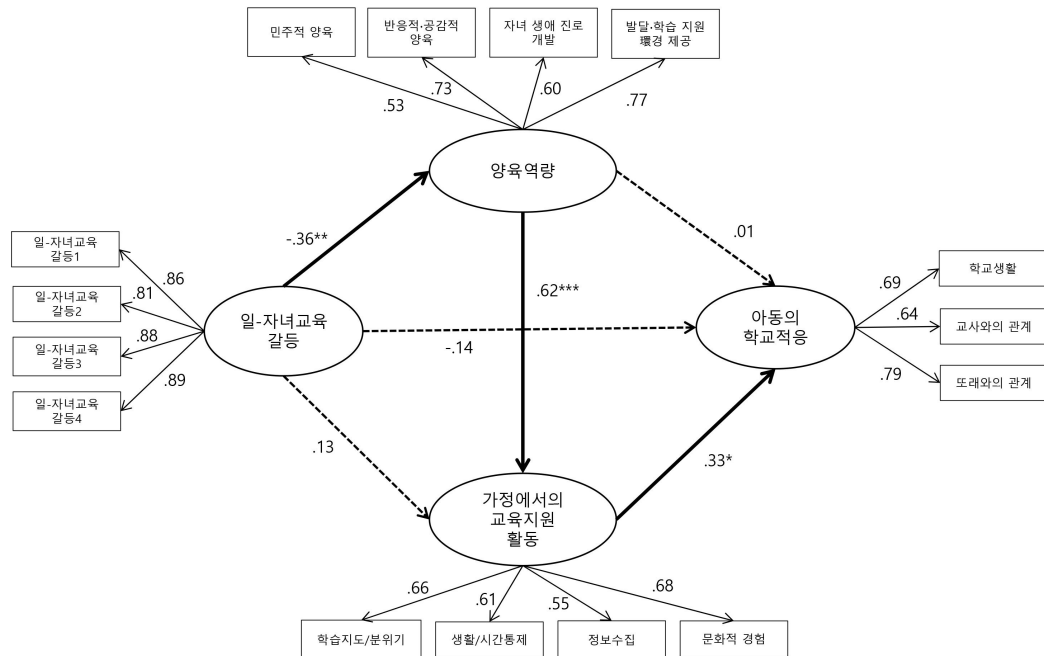
측정모형 분석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 양육역량,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설명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84) = 207.85(p < .001)$, CFI = .91, TLI = .91, RMSEA = .078 (90% CI [.061, .094])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고려한 결과,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절히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수렴타당도는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의 이론적 개념을 얼마나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모든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β)의 절댓값이 .53 ~ .89로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의 기준을 만족시켰다(Bagozzi, Wong, & Yi, 1999). 즉, 각 측정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의 개념을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

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를 검토하였다. 판별타당도는 서로 다른 잠재변인 간의 개념적 차이가 존재함을 말하는 것으로, 잠재변인 간의 상관이 각각 -.36, -.09, -.23, .57, .32, .45로 모두 .85 미만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의 조건을 충족시켰다(Bagozzi & Yi, 1988).

구조모형 분석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 양육역량,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84) = 195.04 (p < .001)$, CFI = .92, TLI = .92, RMSEA = .072 (90% CI [.055, .089])로 모형이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 양육역량,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2 및 표 2와 같다. 먼저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과 양육역량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이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에 미치는 직접 경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과 양육역량의 경로($\beta = -.36, p < .01$), 양육역량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의 경로($\beta = .62, p < .001$) 및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과 아동의 학교적응의 경로가 유의하였다($\beta = .33, p < .05$). 다시 말해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 양육역량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의 간접 경로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 양육역량,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및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구조모형

표 2. 구조모형 경로계수

경로	<i>B</i>	β	<i>SE</i>
일-자녀교육 갈등 → 학교적응	-.09	-.14	.13
양육역량 → 학교적응	.02	.01	.21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 학교적응	.37	.33*	.18
일-자녀교육 갈등 → 양육역량	-.14	-.36**	.11
일-자녀교육 갈등 →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07	.13	.16
양육역량 →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83	.62***	.13

* $p < .05$, ** $p < .01$, *** $p < .001$

만 양육역량과 가정에서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활동을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순차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 양육

역량,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과 아동의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에 양육역량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

표 3. 양육역량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β	SE	95% CI	
			Lower	Upper
일-자녀교육 갈등 → 양육역량 → 학교적응	-.005	.08	-.082	.104
일-자녀교육 갈등 →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 학교적응	.043	.06	-.022	.149
일-자녀교육 갈등 → 양육역량 →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 학교적응	-.072**	.06	-.157	-.007

** $p < .01$.

동의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추정횟수를 $n = 10,000$ 으로 설정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이 양육역량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활동을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72$, $p < .01$, Bias-corrected 95% CI [-.157, -.007]). 즉,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이 높을수록 이들의 양육역량은 낮았고, 이는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으로 연결되어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생활과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자녀교육 갈등에 대한 높은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으며, 일-자녀교육 갈등이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자녀의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Bronfenbrenner & Morris, 2006), 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

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의 양상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인 학령초기에 주목하여,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자녀교육 갈등, 양육역량,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과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학교적응 간의 구조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자녀교육 갈등은 양육역량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에 차례로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이 높을수록 자신의 양육역량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양육역량 수준이 낮을수록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을 더 적게 제공하였고, 그 결과 자녀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끌어낸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일-자녀교육 갈등을 보다 높게 경험할수록 양육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가 일과 가정에서 역할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정미라, 차기주, 주연진, 김민정, 2015), 그리고

일-자녀교육 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정은화 외, 2020) 스스로의 양육역량을 더 낮게 평가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양육역량은 자녀의 발달에 대하여 보다 잘 이해하고, 민주적·합리적으로 양육하며, 자녀의 속마음을 읽고 공감할 수 있고, 자녀의 진로 개발 및 바른 성장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등의 심리정서적 역량을 포함하였다(정계숙, 최은실, 2013). 즉,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일과 자녀교육 영역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때 긴장과 부담을 과중하게 경험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있어서 심리정서적 소진을 야기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지원 활동의 실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과 대조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은 자녀의 학습을 위하여 환경을 조성해주고, 학업스케줄과 일과시간을 관리하며, 자녀의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습관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즉, 취업모가 일과 자녀교육을 병행하며 긴장과 갈등을 높게 경험하더라도, 자녀의 학습을 위한 물리적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역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자녀교육과 돌봄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은 더 적으나,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이 감소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는

더 낮고 양육효능감 및 부모됨에 대한 태도는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손수민, 2012).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자녀가 영유아기에서 학령기에 진입하는 시기에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 수준이 높아지면 양육역량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을 갖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영유아기에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양육역량과,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으로 자녀교육 영역에서 새로이 확대된 부모 역할 수행이 요구되는 학령초기에 필요한 양육역량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정정화 외, 2019).

둘째, 취업모가 일-자녀교육 갈등을 높게 경험할수록 양육역량이 낮았으며, 낮은 양육역량은 뒤이어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이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언급했듯이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은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양육역량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역량은 교육지원 활동의 질적인 유형을 구분하는 예측요인이 되기도 했는데(노보람 외, 2020), 본 연구에서는 양육역량의 수준이 가정 내 교육지원 활동의 양적인 감소에도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취업모의 양육역량이 낮을수록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교육지원 활동이 감소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일-자녀교육 갈등 수준이 높은 취업모의 양육역량 제고를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적은 취업모의 경우 직장일 때문에 자녀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자녀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김안나,

권영숙, 2014), 일-가정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은 감소하는 데 반해 통제적 양육행동은 증가하였다(김종민, 최은아, 2018). 이는 결과적으로 취업모가 자신의 양육역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일-자녀교육 갈등 수준이 높은 취업모에게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의 양보다 상호작용의 질이 더욱 중요함을 알려주고,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밀도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양육역량은 취업모가 학령초기 자녀에게 가정에서 다양한 측면의 교육지원 활동을 제공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유아기와는 다른 학령초기 자녀의 발달적 특성과 욕구를 이해하고, 반응적이고 민주적 양육태도를 바탕으로 양육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은 양육역량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을 통해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교육지원 활동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학교적응의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노보람 외, 2020).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자녀교육 갈등이 양육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고, 복합적인 매개 경로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녀의 건강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 양육역량 및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중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학교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이었으며, 일-자녀교육 갈등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양육역량은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자녀교육 갈등은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양육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가정에서 교육지원 활동의 실재가 다르고, 이에 따라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인 관계가 있었다.

학령초기에는 학습을 위한 사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적절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지원이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적 큰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우 자녀교육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방과 후 돌봄 공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채우기 위해 사교육에 보다 의존하고(양난주, 2020)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은 감소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취업모가 일-자녀교육 갈등을 더 높게 경험할수록 양육역량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져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이 더욱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일과 자녀교육을 모두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시차출퇴근제, 자녀돌봄휴가제 등을 실시하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경우는 오전 10시 출근제 및 초등돌봄교실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민간 차원에서의 제도 활성화 수준은 낮은 편이고, 입학기 자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

에서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학교적응은 자녀의 학교생활과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어머니가 평가한 자료였으므로, 보다 명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아동이 직접 응답한 자료 또는 교사가 보고한 자료 등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적응의 여러 측면(예, 학업 수행)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학령초기 아동의 학교적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변인들 간의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함께 분석한다면 보다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부모-자녀 동일시는 교육지원 유형의 구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노보람 외, 2020),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포함하는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만을 분석변인으로 하였으나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 수준은 어머니의 고용형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의 가족친화정책 시행여부 및 조직분위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인들이 추가로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이세인, 이숙현, 권영인, 2007; 최혜진, 2019). 또한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자녀교육 갈등의 양상은 아버지 양육참여 및 사회적 지지 체계의 활용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이 양육역량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밝혀내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에 초점을 두어 일-자녀교육 갈등이 어머니의 양육 특성 및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취업모가 직장인인 동시에 학부모로서 일과 자녀교육을 병행할 때 경험하는 일-자녀교육 갈등은 단순히 어머니의 시간이나 에너지 자원 부족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환경으로서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뒷받침한다(Bronfenbrenner & Morris, 2006). 학부모로서의 역할이 새롭게 확대되고, 자녀의 학교적응이 주요 발달과업이 되는 시기인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자녀교육 갈등이 취업모의 심리정서적, 그리고 실제적인 양육 특성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본 연구결과는, 맞벌이가정 어머니의 일-자녀교육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미 (2004). 전업주부의 '자식 키우기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4), 537-553.
- 김수정, 곽금주 (2010). 초등 일학년 학교적응의 예언 변인들 간 관련성 탐색: 단기 종단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9-37.

- 김안나, 권영숙 (2014). 취업모의 일-어머니 역할 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모역할만족도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2(10), 375-384.
- 김종민, 최은아 (2018).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영향과 자기체계 역량 증진에 대한 메타분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2), 275-305.
- 김지영, 이강이 (2020). 어머니의 교육참여가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사-학부모 관계의 상호작용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2(1), 81-103.
- 김충일, 권윤정 (2018).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변화폭이 학령전기 및 초등 저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7(3), 207-221.
- 노보람, 박세롬, 박혜준, 최나야 (2020). 학령초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교육지원 유형: 예측요인 및 교육지원 유형에 따른 자녀의 학교 적응. *아동학회지*, 41(1), 15-28.
- 노보람, 박세롬, 최나야, 박혜준 (2018). 일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유형, 예측요인 및 초등학교 적응과의 관계. *유아특수교육연구*, 18(2), 175-201.
- 민미희 (2018a).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및 통제적 양육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3), 91-121.
- 민미희 (2018b).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 긍정적 양육,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성별간 다집단 분석. *육아지원연구*, 13(4), 101-126.
- 박재국, 서보순, 김은라 (2013). 장애아동 어머니의 부모역량연구: 역량요소 구인과 인식경향. *특수교육*, 12(3), 179-202.
- 박주희 (2015).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갈등, 배우자지지 자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3), 41-62.
- 손수민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 심미옥 (2003).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교육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6(2), 333-358.
- 양난주 (2020. 6. 22). 초등교육과 온종일 돌봄.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0459.html>에서 2020년 7월 20일 인출
- 오성삼, 구병두 (1999). 메타분석을 통한 한국형 학업성취 관련변인의 탐색. *교육학연구*, 36(4), 99-122.
- 우주영, 심미경 (2019). 모의 양육민감성 및 학령전 사회적 기술이 학령초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모의 양육효능감 및 아동행복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9(4), 1-13.
- 유성경, 홍세희, 박지아, 김수정 (2012). 다중역할, 한국여성의 일-가족 갈등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1), 1-29.
- 윤지영 (2016). 초등학교 교육지원활동과 모의 취업. *여성경제연구*, 13(2), 183-212.
- 이강이, 그레이스정, 이현아, 최인숙 (2013). 2012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 실태조사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학부모정
책연구센터.
- 이민경 (2007). 중산층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담론: 자녀교육 지원태도에 대한 의미 분
석. *교육사회학연구*, 17(3), 159-181.
- 이세인, 이숙현, 권영인 (2007). 가족의 지원
및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가 사무직 취업
모의 일-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
족관계학회지*, 12(3), 29-57.
- 이운경, 김민주, 윤기봉 (2018). 부모, 또래, 지
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가 지역아동센
터 이용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
국가족복지학*, 23(4), 633-652.
- 이재희, 김근진 (2019).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 취업모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한
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2), 647-659.
- 이종각, 김기수 (2003). '교육열' 개념의 비교와
재정의. *교육학연구*, 41(3), 191-214.
- 이진숙 (2004). 취학 전 시기의 모-자녀관계,
교사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초기 학교적
응에 미치는 영향: 단기종단연구. *미래유
아교육학회지*, 11(4), 333-357.
- 장혜진, 김은설, 송신영 (2014). 아동 개인 및
가정환경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
학교적응 차이 연구. *초등교육연구*, 27(2),
95-122.
- 장혜진, 윤은주 (2014).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
모역량 실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2),
295-317.
- 전지원, 전자배 (2016). 부모의 교육적 지원이
초등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학
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교육*, 43(2), 5-31.
- 정계숙, 최은실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
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개발 연구. *열린유
아교육연구*, 18(3), 225-257.
- 정미라, 차기주, 주연진, 김민정 (2015). 취업모
의 직장 내 분위기의 율통성, 역할갈등,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역량 간의 구조적 관
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4), 433-454.
- 정은화, 김지영, 이현아, 이강이 (2020). 초등학
교 2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자녀교
육 갈등이 모의 양육 수행 역량에 미치는
영향: 모의 부모-자녀 동일시의 조절효과
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41(2), 89-101.
- 정정화, 홍예지, 이강이 (2019). 초등학교 전이
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추정과 영향요인 및 결과
요인 검증. *인간발달연구*, 26(4), 115-138.
- 조형숙, 김명하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의 정서적 양육역량 증진 프로그램이 부
모의 자아상태, 자기분화, 양육태도에 미
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7(3), 271-293.
- 최정숙 (2011). 일-가족 역할갈등에 관한 근거
이론 연구: 학령기 자녀를 둔 전문직 여
성을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9,
214-247.
- 최혜진 (2019).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종
사상 지위와 일-가족 갈등: 주중근로시간
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1(1), 201-224.
- KB경영연구소 (2019). 2019 한국워킹맘보고서.
<https://www.kbfg.com>에서 2020년 7월 20일
인출
- 통계청 (2010). 200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 <https://kostat.go.kr>에서 2020년 7월 17일
인출
- 통계청 (202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https://kostat.go.kr>에서 2020년 7월 17일
인출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
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임상심리학회
지*, 19(1), 161-177.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agozzi, R. P., Wong, N., & Yi, Y. (1999). The
role of culture and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effect. *Cognition
& Emotion*, 13(6), 641-672.
- Bronfenbrenner, U., & Morris, P. A. (2006). The
bioecolog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
In R. M. Lerner (Ed.), *Handbook of child
development: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Vol. 1., pp. 793-828).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Epstein, J. L. (1992). School and family
partnerships. In M. Alkin (Ed.),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6th ed., pp. 1139-1151).
New York: Macmillan.
- Frone, M. R., Russell, M., & Cooper, M. L.
(1992).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Testing a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1), 65-78.
- Goode, W. J. (1960). A theory of role stra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4), 483-496.
- Rimm-Kaufman, S. E., & Pianta, R. C. (2000).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A theoretical framework to
guide empirical research.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1(5), 491-511.
- Russell, D., Kahn, J., Spoth, R., & Altmaier, E.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 1 차원고접수 : 2020. 08. 06.
수정원고접수 : 2020. 09. 17.
최종게재결정 : 2020. 09. 20.

Effects of the Work and Child-Education Conflict of Working Mothers Having a Child in a Second Grade on Their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Competence and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at Home

Park, Saerom¹⁾

Hong, Yea-Ji²⁾

Lee, Kangyi¹⁾³⁾

¹⁾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²⁾Dept. of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³⁾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competence and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at hom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mothers' work and child-education conflict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Data on 163 working mothers having a child in the second grade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Parent Educational Involvement (PSKPEI) in 2018 were analyzed. Our main findings illustrated that while the work and child-education conflict of working mothers had not shown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thei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it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rough parenting competence and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at home. In other words, when working mothers have high levels of work and child-education conflict, they tend to have lower levels of parenting competence, but when they have higher levels of parenting competence, they tend to have higher levels of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at home, in turn, leading to better school adjustment by their children. This study empirically confirmed the importance of working mothers' psycho-emotional parenting factors on thei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by placing emphasis on parenting competence and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at home.

Keywords: working mothers, work-child education conflicts, school adjustment, parenting competence,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at home